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법 석방 지휘 규탄! “최상목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 수용하라!”



▲ 전체회의 진행중인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서영교 단장과 한병도 부단장, 전용기 수석대변인, 염태영·송재봉·김승원 본부장과 김기표·이연희·이성운·양부남·허성무·박정현 위원





10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군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와 ‘명태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끝)

○ 서영교 단장 모두 발언

이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도 안 되는 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사실상 탈옥을 심우정 검찰총장이 도운 거 아닙니까?

명태군게이트 관련해서 수많은 내용이 나왔는데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윤석열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게 풀어줬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곳곳에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증거인멸을 지시할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증거인멸은 구속의 사유입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십시오.

법원이 황당무계한 논리로 윤석열을 석방해야 한다고 했고, 그러면서도 법원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 해야 하는데,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며 즉시항고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적인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에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고 되어있는데, 이게 위헌일 수 있습니까?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위헌이 말이 됩니까?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④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그리고 제405조에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보석으로 풀어줬는데 즉시항고하면 위헌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범죄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2박 3일 내로 상을 치러야 할 때, 그때 풀어주는 게 구속집행정지입니다. 그때 즉시항고하면 위헌이라고 한 겁니다.

위헌 판결이 딱 2개만 났지, 구속취소에는 난 적이 없습니다.

검찰도 다 아는 내용인데,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이니까 아주 심사숙고해서 풀어주게 됐다고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 무혐의 처리할 때, 도이치 모터스 관련으로 압수수

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해서 압수수색 못했다고 검찰이 거짓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국민 앞에 브리핑하면서 검찰이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창수 지검장부터 탄핵한 겁니다.

이렇게 법에 즉시항고가 규정되어 있는데, 위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위헌이라고 거짓말한 심우정 총장에게 경고합니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김영선이 적은 명태균의 정체
윤석열, 김종인,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도왔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잘 알아서 오세훈 시장의 선출 전략에 큰 도움을 주고, 이준석 대표의 당선에 여러 컨설팅을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을 연결, 지지하게 하고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도록 하여 당선에 기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정 본인 당선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 위원장을 연결시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당선에 조직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 과정의 모임에서 본인(A)도 D, E를 한 번 본 것입니다. 그 후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홍준표를 승복시킵니다. 이는 명태균이 홍준표의 대구 국회의원 당선에 일조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선 소명서, 작성 일자: 2023년 10월 3일

▲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잘 알아서
오세훈 시장의 선출 전략에 큰 도움을 주고,
이준석 대표의 당선에 여러 컨설팅을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을 연결, 지지하게 하고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도록 하여 당선에 기여했습니다.

▲ 그 후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홍준표를 승복시킵니다.
이는 명태균이 홍준표의 대구 국회의원 당선에
일조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3년 10월에 김영선 씨가 작성한 소명서입니다.

그 소명서에는 ‘명태균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잘 알아서, 오세훈 시장의 선출을 위한 전략에 큰 도움을 주고, 이준석 대표의 당선에 여러 컨설팅을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김종인●오세훈●이준석을 연결, 지지하게 하고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도록 하여 당선인에게 기여했다’

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홍준표 얘기, 오세훈 얘기, 김종인 얘기, 이준석 얘기, 윤석열 얘기가 23년 10월 소명서에 다 들어있고, 이걸 검찰이 다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혜경 씨가 2024년 10월 국감때 국회에 출석해 다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잠재운 장본인 검찰! 그리고 이를 누르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그 간부들, 모두 총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김건희 소환도 촉구합니다.

○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 염태영 본부장 발언

명태균씨는 지난 3월 6일과 7일 검찰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들과 여처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 언론보도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추가로 3번을 더 만났고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스피커 통화를 했으며 차에 동승했던 김태열 씨가 이를 들었다고 했으며 당시 오세훈 시장이 “지금 거기 어디냐. 빨리 지금 서울에 올라오셔야지 거기 있으면 어떡하냐”는 육성을 들려주었으며 같이 검찰조사를 받은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들도 명태균과 오세훈 시장의 통화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오세훈 시장의 상황과 판박이입니다.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 명태균 씨는 9번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홍준표 시장을 위해 해주었고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한 박재기, 홍준표 시장의 아들의 친구인 최모씨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대구시 서울사무소 공무원으로 채용된 박모씨 3명의 인물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재기는 2011년부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중소기업정책특보로 임명되며 2013년 경남도지사 중소기업 특별보좌관, 2014년 홍준표 선거캠프 상황실장, 2014년 경남도지사 재선 직후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며 오랜기간 홍준표 시장의 측근으로 있었습니다.

2022년 대구시장 지방선거 때는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2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차명으로 입금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강혜경씨와의 녹취록에서 그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2일자 녹취에는

강혜경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독촉하자, “그래요. 입금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라고 입금을 약속했으며 실제 그 당일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4일자 녹취에는

“예 그 천만원 내가 줄게요. 남은 거 준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입금 못하고 내일 입금시킬게” 라며 천만원 입금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 1천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또 2024년 11월 12일, 명태균 씨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녹취록에는

“박재기한테 1억 가져온 거예요. 소장님은 5천만 갚으면 돼요. 이 미래한국 5천은 내 컨설팅 비용이야. 홍준표”

라며 홍준표 시장의 선거를 도와준 대가를 받는 것만양 얘기하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 여론조사 비용 외에도 박재기씨와 명태균이 홍준표 시장의 선거를 위해 모종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최모씨는

홍준표 시장의 아들의 오랜 친구로 2011년 그의 결혼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이라는 이름을 축하 하환을 홍준표 시장이 보내줄만큼 오래되고 친한 인연입니다.

2021년 2월에는 최모씨가 김종인 전 위원장과 가깝다고 알려진 명태균씨를 만나 홍준표의 복당을 부탁하기도 했으며 그 이후 명태균과 같은 아파트 이웃주민 관계가 되면서 명태균씨와 매우 친한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대구시장 선거를 위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구체적인 여론조사

방식과 위법 사항, 여론조사 비용들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들이 강혜경 씨와의 녹취록에서 드러났고 지난 3월 6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들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중에는 2022년 3월 21일자 녹취에는

최모씨가 “제가 카톡으로 좀 오래된 거긴한데 대구 당원 멤버 보내드렸거든요. 최신거는 그걸로 여론조사 가능하죠? 그걸로 그냥 대구시장 거 세 분만 넣어서 저번처럼 설문지 그대로 해서 좀 돌려주시겠어요?” 라며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유출하고 이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녹취도 있었습니다. 실제 최모씨는 56만 8000명의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유출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최모씨는 서초구 1선거구 시의원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 이때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최OO 파이팅!”이라는 댓글도 직접 달아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모씨는 시의원 공천을 받지 못하고 명태균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영선 의원실 보좌관으로 1년을 근무하게 되고, 2023년 7월에는 대구시 서울협력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다 2024년 10월 11일, 당원 명부 유출 논란으로 사퇴하게 됩니다.

이 여론조사에는 최모씨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여론조사 비용 4,370만원을 실제로 지불한 인물은 박모씨로 최모씨의 동업자였다고 합니다. 박모씨는 대구시장 선거 직후인 7월 12일에, 대구시 서울협력사무소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지난 3월6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것이 전형적인 홍준표 시장의 꼬리자르기이며 박모씨에 대해서도 똑같이 꼬리자르기 하실 것인지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월 7일, 박모씨는 사퇴를 했습니다.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을 도와주었던 인물들을 바로 토사구팽해버리는 것

이 홍준표 시장의 정치입니까? 그런 사람이 대구시장의 자격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선 주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최모씨와 박모씨에게 제안드립니다. 공익제보자가 되셔서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투명하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주시고 본인들의 양심과 정의를 지키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홍준표 시장님, 지금이라도 전국민에게 진실을 소상히 밝히시고 시장직에서 사퇴하십시오.

○ 정치자금법 등 법률본부 김승원 본부장 발언

명태균 특검법은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거부 시한은 3월 15일입니다.

3월 4일 국무회의 때 상정을 안 했기에
내일 화요일은 명태균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전히 고심 중이라는 명분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고심’ 이 아니라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정치’ 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주요 국정 운영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윤석열 사람,
아무리 시간을 끌고, 명분을 만들어도 결국 윤석열의 방패 역할을 자처하고 있을 뿐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했고, 국민의 요구도 분명합니다.

단순한 직무 유기를 넘어 윤석열 정권의 방탄을 위한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특검을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와중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고위 관계자들이 명태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태균은 심지어 ‘국힘 정치인 30명을 죽일 카드’라고 말하기 까지 하며,

아울러 “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미국 대북특사로 추천을 했었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관련 윤한홍, 박완수, 김영선, 김종인 등에 대한 자료가 많다”고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고 부르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스스로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되었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행이라는 직책이 특정 세력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명태균 특검, 피할 수 없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법을 공포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십시오.

○ 공익제보 조사본부 송재봉 본부장 발언

검찰,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없이 ‘석방지휘’로 내란수괴를 사실상 탈옥시킴.

지각 기소라는 신박한 법 기술 사용.

내란세력과 한 몸이자, 내란세력의 최후의 방어 세력임을 스스로 증명.

윤석열·김건희가 국정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킨

공천개입, 선거 여론조작, 인사개입, 각종 이권개입 등

전방위적으로 국정농단을 벌이고 있었던 사실이 윤석열-김건희 육성녹취, 공
익제보자들의 증언, 검찰 수사보고서 통해 연일 폭로되고 있음.

하지만 검찰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제대로 수사할 거라는 기대를 접음.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동조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 권력실세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도 방해

윤석열의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된 것으로 의심되는 명태균게이트 수사도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공포를 차일피일 미루며 사실상 내란세력에 동조하고 있음

세상에는 감출 수 있는 비밀은 없음

권력의 힘으로 잠시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는 법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임.

더 이상 죄를 더하지 말고, 지금 당장 명태균 특법 수용 공포하길 바랍.

○ 여론조사 조작 조사본부 이연희 의원

검찰이 2021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지금
어디냐, 빨리 지금 서울로 올라오셔야지 거기있으면 어떡하냐” 고 채근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명씨와 관계를 끊어냈다고 변명했으나, 이와 상반되는 진술이 나온 것입니다.

더불어 명태균씨는 검찰에 “오세훈 시장이 선거법 때문에 직접 못주니 김한정씨에게 돈을 빌리러 가고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도 보도되었습니다. 이미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는 2월 중순 “돈 듣게 얼마지 아냐, 왜 (오세훈 시장이) 이기는 조사가 안나오냐”고 항의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1년 2월 14일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응답완료 숫자를 조작해 나경원-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좁혔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 9.1% 격차가 2.4%의 오차범위 내 격차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3월 12일 비공표 여론조사에서는 176명의 응답완료를 929명까지 늘려 오세훈 47.7% 안철수 52.3%의 여론조사 결과를 오세훈 51.7%, 안철수 48.3%로 조작해 1위 후보를 뒤집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1년 3월 1일 미래한국연구소의 공표용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15.4%의 한참 앞서는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불과 12일 이후인 3월 13일 공표용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38.5% 안철수 후보가 33.2%로 오세훈 후보가 5.3% 앞서는 결과가 발표됩니다.

해당 두 공표용 여론조사를 살펴보니 3월 1일의 여론조사는 유선 RDD 비율이 9%였으나, 3월 13일의 여론조사는 유선 RDD 비율이 19%까지 늘어나 있었고, 정당지지율이 국민의힘 30.3%의 과잉표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3월 13일의 여론조사로 오세훈 시장은 “골든크로스가 이뤄졌다며 SNS에 홍보까지 했습니다. 명태균씨가 사기꾼이라 인연을 끊었다더니 버젓이 명태균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로 홍보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에 구체적 증언과 증거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명태균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검찰이 노골적으로 명태균 수사를 안하려고 한다” 며 “수사보고서에 윤석열·김건희의 공천개입 의혹을 보여주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메시지가 고스라니 담겨있음에도 수사를 제대로 안하고 사실상 덮었다” 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윤석열 석방이라는 잘못된 법리해석에도 항고를 포기하며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고,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이유입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검찰은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체적 진술이 확보된 만큼 하루빨리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철저한 명태균 게이트 수사로 검찰이 내란수괴와 그 잔당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명태균씨의 검찰 진술이 사실이라면,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술한 의혹에도 요리조리 기름장어처럼 잘 피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뼈박증거 앞에 기름장어의 수명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정은 내팽개치고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면서 흑역사 하는 마음으로 조기대선을 간보는 헛된 미몽에서도 깨어날 때입니다. 즉각 사퇴하고 검찰 수사부터 받길 바랍니다.

○ 정치자금법 등 법률본부 김기표 의원

며칠 전 법원은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이 결국 감옥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정은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실낱같이 남아있던 마지막 신뢰마저 저버렸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명태균 그리고 윤석열·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창원지점에서 수사를 해놓고도 은폐, 축소해오다가 중앙지점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중앙지점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에 대해 우려 섞인 전망과 예측이 있었는데, 최근의 사태를 볼 때 이 우려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이 노골적으로 수사를 안 하려고 한다. 내가 사건을 맡기 전인 지난해 11월 4일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보여주는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럼에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사실상 덮었다. 그 보고서가 그냥 있었겠나? 당연히 대검찰청이나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을 통해서 윤석열·김건희에게 전달됐을 거다.”

반드시 특검이 필요합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1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최상목 대행은 특검을 수용하지 않고 묵묵부답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검찰은 이미 그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이제 특검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이

상 지체하지 말고, 명태균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는 정의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 허성무 의원

최근 국토부는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을 예정구역 내에 폐구리 광산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지정을 보류하고 창원시와 경상남도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폐구리 광산은 1920년대부터 개발되었고 최근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곳입니다. 지역 주민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광산이었는데. 이제 이런 이유로 보완지시를 하고 보류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정 과정에 불법이 있고 또 불법 투기가 있었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특검을 통해서 밝히고 법적 조치하면 될 일입니다. 민주당은 제2국가 산단 지정은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이 석방됐습니다.

70년 된 법적 관행이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습니다. 법원이 윤석열을 위한 특혜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즉시 항고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수괴에만 적용되는 맞춤형 사법정의인 내란주범 탈옥 편의를 주도했다고 봅니다.

이제 명태균도 똑같이 구속 취소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법원이 윤석열에게 적용한 논리를 명태균에게도 똑같이 적용할까요? 검찰이 즉시 안보 없이 받아들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번 결정이 윤석열만을 위한 특혜 탈옥 편의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남상권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신한국당에서 활동하며 과거 창원 지역에서 창원 성산구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

리고 경남 고성군수 예비후보로도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의힘에 매우 소속감이 강하고 로열티가 강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명태균 수사를 검찰이 하지 않고 문제가 많다고 끊임없이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그리고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특검을 수용해야 됩니다. 특검을 수용할 수 있는 거부권 시한이 3월 15일로 이제 며칠 남지 않습니다.

더 미루는 것은 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최상목이 공범이라는 자백 외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면서 명태균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정치자금법 등 법률본부 이성운 의원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습니다. ‘아주’, 죽었습니다.

김건희 불기소에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은 이제 ‘회생불능’입니다.

야당 인사였어도,

휴일에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며, 구속기소 시간을 끌었을까요?

구속취소결정에 고작 28시간 땀들이고 풀어줬을까요?

지난달 19일, ‘탈북어민 복송사건’ 1심은

전 정부 인사들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합니다.

검찰은 득달같이, 네 시간도 지나기 전에 항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야당에게는 악착같던 검찰이, 윤석열에게는 작정한 듯 허술합니다.

꼬투리 잡힐 빌미를 제공해 윤석열 쪽에서 물고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법원이 문제삼자, 기다렸다는 듯 구속취소결정에 승복합니다.

정치검찰의 ‘기계적 불복’ DNA가, 유독 내란세력 앞에선 잠잠합니다.
오죽하면 정치검찰의 ‘의도된 기획’, ‘계산된 착오’가 아니냐는
말까지 돕니다.

윤석열 구속이 취소되니, 명태균도 구속취소를 준비한답니다.
만에 하나 법원이 명태균 구속도 취소되면,
그때도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할 겁니까?

내란수괴 석방지휘로, ‘국민을 위한’ 검찰은 죽었습니다.
국민을 배반한 검찰총장과 정치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사퇴하십시오.